

공존하는 다양성, 여성적 연대
- 새로운 저항의 권력을 예감한다!!

최승민(여성자치연합)

"여성" - 여성적 연대를 대표하고 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거부돼 온 여성들 간의 연대를 의미한다. 여성들의 연대는 여태까지 비정치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여성들의 정치세력화를 의미한다. 또한 부차적이고 하찮은 것으로 치부됐던 여성성에 새로운 의미부여의 과정도 포함된다.

"자치" - 스스로를 다스린다는 것이다. 모순적인 현재를 극복하고 우리가 살고 싶은 미래를 창조해내는 것, 자신의 삶은 자신이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자치에 대한 욕구는 박탈될 수 없다.

"연합" - 연합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 다른 단위들의 연대를 의미한다. 그런데 만약 그 연대끼리 서로 같은 것들 끼리 연대라면 '연대'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여러 단위들 간의 연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차이가 전제되어야만 할 것이다.

여성자치연합은 학내 다양한 여성 관련 모임들이 만든 연합체이다. 사람들은 '총여학생회'가 있는데 왜 굳이 또 여성자치연합을 만들었는지에 대해 궁금한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여성자치연합은 여성문제는 항상 사적인 공간(정치와는 거리가 먼)으로 치부된다는 현상에 집중을 하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의 형태, 새로운 운동의 방식을 고민하고자 만들어졌다. 그리고 11월에 건설되지 않은 총여학생회의 자리에 들어가 총여학생회의 역할을 했다. 여성자치연합은 학내 여학생들의 대표체인 총여학생회와 학우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모임 사이의 괴리를 좁히는 작업을 시도했다.

그런데 여성자치연합이 총여학생회 건설준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왜 막상 총여학생회가 되는 것은 유보하는 것일까? 방금 '새로운 조직, 새로운 운동'이라는 말을 했었다. 새로운 조직? 그렇다면 기존의 조직은 여성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인가?

1. 학생회는 부르조아적 권력 질서를 그대로 답습해야만 하는가?

현재 한국의 자본주의 사회는 보수의 길을 걷고 있다. 문민정부가 도래했다고 하고 민주주의가 실현됐다고 하나 그래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사회는 모순을 숨기고 있으며, 사회 곳곳에서 그 보수적인 모습을 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보수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사회가 '보수화'되고 있다고 한 마디로 일축해 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보수주의는 극단적인 정치화와 탈정치화의 이분법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하나의 영역으로, 또는 하나의 주체로 모든 정치성을 응축하는 것과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다른 모든 것들을 주변화시키고, 대상화하고 통제가능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통제가능한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그 집단에서 어떠한 정치적인 가능성, 저항성과 자발성을 박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생각해보자.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정치적'인 것이며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정치적이지 않은' 것인가?

그 경계선은 너무나도 모호하고 불분명하나, 그래도 여전히 그 경계선이 마치 절대적이고 균질적인 것마냥 이야기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할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현상, 정치와 비정치의 이분화가 바로 이 대학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며,

바로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학 내에 자리잡고 있는 학생회 권력 구조가 바로 이러한 국가 권력구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과는 철저한 위계 질서에 입각한 권위주의적인 학생회 구조이다. 학생들의 모든 정치성은 학생회로 집중되며, 다수의 학우들은 무관심하고 수동적인 '일반 학우'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매년 선거가 치뤄지면서 학생회라는 틀을 채우는 내용은 변하지만, 여전히 그 틀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정치와 비정치의 이분법을 고착화할 뿐이다.

조심해야 할 것은,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학생회의 필요성/불필요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의 초점은 학생회가 학생들의 유일한 권력체가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모든 권력이 저 위에 있는 학생회로 수렴된다는 것이며, 끊임없이 미화되는 대의제 선거를 통해 그러한 권력이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회 외 다른 방식의 권력은 사고할 수 없는가? 탈정치화된 다수의 학우들이 자신의 정치성을 자신이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학생회/여학우/여성운동에 있어서는 탈정치화, 중앙집권화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적용된다. 왜냐하면 여성문제란 본질적으로 사적 영역, 개인과 가정이라고 간주되는 '비정치적' 영역에서 정치를 사고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란 바로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며, 학생회 체계도 어느 정도 가부장적인 위계 질서를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이다. 즉, 정치적인 것과 비정치적인 것과의 지속적인 분할은 가부장제가 그 존재 근거로 삼고 있는 부르조아적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분할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학생회는 항상 공적인 영역이다. 그렇기에 '정치적'인 영역이다. 그리고 항상 공과 사의 이분화 속에서 여성들은 사적인 영역으로, 비정치적인 영역으로 밀려나기 마련이다. 요즘 여학우들이 과학생회장이나 많이 되지만, 단대 그리고 총학생회장으로 여학우가 되는 일은 드물다. 여성들이 본질적으로 정치에 무관심 내지는 무능력하다는 것은 지극히 의심스러운 논리이다. 남학우들이 의도적으로 여학우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여학우들이 본질적으로 정치와 거리가 먼 것이 아니라, 바로公私의 이분화, 정치와 비정치의 이분화에 입각한 권력구조 그 자체에서 여학우들은 밀려나는 것이다.

2. 여성운동은 여성들의 정치적 세력화와 동시에 여성들의 정치세력화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권력 구조에 대한 저항과 투쟁이다.

여성운동은 자신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분노들(성폭력, 취업, 가족과 결혼 등)을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분노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방식으로 싸워나가는 것이 여성운동이다. "가족에서 왜 나는 딸이라고 차별을 받는가? 왜 여성은 이렇게 취직하는게 힘들고 하더라도 임금이 남성들보다 적은지....회사 들어가면 남성들이 성추행하는 것이 허다하다고 하는데, 이것을 참아야하나.....하긴, 대학 내에서도 성추행은 만만치 않게 일어나긴 하는데...." 여성이기에 발생하는 일상적인 것들 - 사람들이 하찮은 것이라고 치부하는 것들 - 그러나 그냥 참고만 살기에는 너무나도 화가 나는...누군가가 와서 이러한 문제를 나 대신 해소해줄 수는 없을 것이다. 내가 일상 속에서 느끼는 문제들을 가지고 내가 먼저 행동해나가는 것이라 말로 여성운동의 시작이며, 이러한 작은 움직임들에 주목하고 서로서로 (알고 보면 우리 여성들 모두 겪는 문제이니!!) 연대해가는 것이 바로 여성운동일 것이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현대의 부르조아 국가는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이분화로 이루어져 있다. 공적인 영역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영역으로 합리성과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며 사적인 영역은 가정의 영역으로, 비합리적이며 감정적인 부분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할은 곧 남성과 여성의 '역할 분화'와 맥을 같이 한다. 공적 영역은 남성들의 공간이며 사적 영역은 여성

들의 공간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정치'라는 것이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사적 영역의 목소리들은 오로지 공적 영역이 대변함으로써 나올 수 있다면, 이것은 여전히 가부장적인 질서를 그대로 유지되고 여성들의 목소리는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물론, 그 대변자들이 여성일 수 있다. 그리고 제도화된 권력을 이용해 여성들의 고유한 목소리를 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이러한 권력체에만 의존할 수도 없다는 것이 현재 여성운동의 고민일 것이다.

이미 주어진 공간을 채우고 그 공간을 확장시키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여성들의 정치세력화를 가로막고 있는 그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장애물 하나하나를 제거하면 되겠지만, 보다 변혁적인 차원에서는 장애물을 재생산해내는 구조 자체를 해체시켜야 할 것이다.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남성중심적 권력에 힘을 내고 여성들의 정치적 공간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새로운 형태의 자치질서를 만들기 위한 몇 가지의 제안들.....

정치세력화와 동시에 억압적 구조에 대한 저항은 자발성에 기반한 연대의 운동으로 가능할 것이다. 여기에서 자발성이란 위에서 언급한 '자치'와 비슷한 의미이다. 자신의 자발성에 근거해 이론과 현실이 결코 분리되지 않는 공동체적 조직을 형성해나가는 것이다.

①정치적 의지/집행/ 운영을 분리시키지 말자.

어느 한 개인이 정치적 의지와 욕구를 느낀다면 그 사람이 직접 집행(실행)을 하고 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그 욕구들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되거나 또는 위임된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위임'을 받은 다른 사람이 대신 조직을 운영하고 또 다른 사람이 실질적인 집행을 하게 된다. 이것은 수동적인 다수의 학우들('대중')을 적극적인 소수의 학우들('전위')이 이끌 수 있다는 권위주의적 생각과도 연관돼 있다.

②회의를 모든 이에게 개방해놓는다.

집행과 운영이 분리돼 있지 않다는 것은 두 가지가 서로 같은 장소에서 함께 논의된다는 것이며 또한 참여하고 있는 학우들 사이에 위계화를 없앤다는 것이다. 보안의 경우만을 제외하곤 조직에 발을 디디고 있는 모든 이에게 회의(의결권)를 개방하는 것이 가부장적 국가주의에 작은 저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③분업이 아닌, 분담으로

자본주의의 가장 큰 폐허 중 하나는 분업에 따른 인간의 소외이다. 분업은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효율성의 원칙에 기반해 있으며 또한 성별 분업과 맥을 함께 한다. '일'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학우들이 자본주의적 효율성의 원칙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는 않은지.....선전일은 언제까지나 여학우들의 몫이다? 가부장적 분업 체계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아직 실험 중이고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분업이 아닌, 유동적인 분담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솔직해지자. 아래로부터의 권력....대안적인 삶의 방식....새로운 권력체....창조성과 상상력에 기반한 운동....이것의 구체적인 모습은 아무도 모른다. 감히 아무도 말할 수 없다. 대안은 그냥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절대적인 진리도 아니다. 우리는 현재의 모순을 인식할 뿐이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래를 위해 현재가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적 투쟁들 속에서 대안적인 미래가 형성되는 것이다. 대안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해체주의이다' '무정부주의이다'라는 비판을 던지기 전에 서로를 신뢰하자....이 사회에는 억압받고 소외당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 동지적 관계를 생각해보고 진정한 연대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보자....오로지 통일성에만 기반하는 단결을 요구하는 것은 이 사회가 소외시키는 사람들을 또 다시 억압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리고 한 자리에서는 피억압자인 사람이 다른 곳에서는 억압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자.....

1)작년 11월 총학생회 선거 때 선거 비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왔었다. 어느 한 선본에서 교문 앞에 붙히는 왕자보 선전물 하나에 약 200만원을 썼다는 소문이 돌면서부터였다. 문제의 본질은 선전물에 200만원을 쓰느냐 아니면 3만원을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그냥 절약하면 된다. 또는 선거가 '이미지 戰'이라는 것이 문제이면 내용에 더 충실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학생회 선거는 학우들의 정치적 발언을 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며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미화된다. 즉, 문제의 본질은 거의 '완벽한' 선전물을 만들어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 그 자체이다.

2)학생회 공약은 주로 정치와 복지의 이분화로 구성돼 있다. 정치는 저밖에 일어나는 일들이며 복지의 문제는 학우들의 일상적인 요구들- 즉 비정치적인 일반 학우들의 요구들 -을 해결하는 것이다. 현재 총학생회는 기존의 총학생회가 너무 정치적인 학교 밖의 문제들에만 집중하고 학내 문제들엔 소홀히했다면서 복지 중심의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학교 밖이냐(정치) 아니면 안이냐(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학내 문제도 역시 지극히 정치적인 문제들이라는 것이다. 한 마디로, 정치와 동떨어진, 학우들의 일상적 문제를 해결 (누가 해결해줘!?)하는 복지란 없다.